

목포시, 추석 연휴 철저한 방역 속 확진자 없이 마무리

8개 분야 총 350명 비상근무 체계 상시 유지

주요 관광지 30개소 매일 60여명 방역 점검

목포시는 추석연휴기간(9.30 ~ 10.4)동안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철저한 방역체제를 유지했다.

시에서는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종합상황, 교통, 관광, 생활민원, 복지, 일반민원, 보건위생, 재난재해 총 8개반을 편성하고 350여명이 비

상근무를 실시해 큰 사건 사고 없이 명절 연휴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해 총력을 다 했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보건소 내에 설치하고,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해 즉시 진단 검사가 가능토록 보건소를 포함한 총 7개소의 의료기관에 선별진료

소를 운영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추석연휴동안 254명을 진료하고 이중 위험분류환자 159명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으로 나왔다.

연휴기간 동안 시 주요 관광지인 해상 케이블카, 근대역사관, 목포자연사박물관 등에 32,000여명이 방문

하여 추석연휴를 보냈다.

시 공직자들은 방문객에 대비하고자 추석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고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총 484개소를 매일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을 홍보했으며, 주요 관광지 30개소에는 매일 60여명이 방역점검 및 소독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

나 확산방지를 위해 고향방문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방역에 힘쓴 결과 우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시에서는 끝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영암군, 2021년 신규시책 ·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

2021년 정부정책방향 대응 세부 실행방안 논의



영암군은 지난 5일 군청 남산실에서 전체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신규시책 및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고 군정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군정발전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생활안정, 취약계층 복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신규시

책(76건)과 군정 주요사업(241건)

총317건의 핵심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는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입 장려 지원 시책 신규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건조·실증사업 ▲군정소식 SNS'毓산 영암뉴스'운영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전문가 육성 ▲월출스테이션-F 조성 ▲영산호 수상복합 레저파크 조성 ▲가정위탁아동 자격증취비 지원 ▲드림스타트 꿈키움단 운영 ▲월출산 GREEN뉴딜 판단지 조성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 숲 조성사업 ▲IoT기반 번식우 관리 시스템 구축 ▲영암 안심귀가시스템(안심이) 구축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벼 노동력 절감 장비기술 모

델 시범 ▲박물관 온라인전시관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Clean & Safe) 수돗물 생산시설 구축 등이 발표되었다.

영암군은 보고된 사업들에 대해 조정 과정을 거친 뒤 부서별로 사업을 확정하고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군민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참신하고 알찬 군민체감형 시책 개발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영암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과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방안 마련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군 재정력을 키우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청사출입 편리한 '안심전화' 인증

목포시, 080 휴대전화 한통 신속한 출입 가능

목포시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 '080 안심전화 출입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080 안심전화 출입관리'는 시 본청, 목포시의회, 보건소, 사업소, 23개 동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청사를 출입하기 전에 080번호로 전화를 걸어 방문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휴대전화로 지정 전화번호에 발신하면 "방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 후 통화가 자동 종료된다. 민원인은 출입관리자에게 핸드폰 전화기록을 확인받고 다른 절차 없이 청사를 방문할 수 있다.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시간 등 통화

기록은 KT 지능망 전산 서버에 남게 되고, 4주간 보관 후 자동 폐기된다.

그간 운영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경우에는 고령층이 이용하기 어렵고 수기명부 작성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허위·부실 기재로 인한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080 안심전화 출입관리 서비스'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의 약점을 보완해 휴대전화만 있으면 가능하며, 정확성은 높이고 시간은 단축돼 시민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휴대폰이 없는 민원인을 위해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영광군, 새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농업인 40여 명 참석...문제점·우수사례·현장 평가 실시



영광군은 지난 9월28일 농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새

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올해 추진한 식량작물, 소득개발 분야 기술보급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를 하고, 드문모심기 배 재해 포장 견학, 소득작물 분야에서 딸기 스마트팜 구축단지, 아열대과수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현장 견학에 참여한 농가들은 기존 벼를 평당 60~70주 이양하던 관행에서 37주~50주 이양에도 수확량에 큰 차이가 없이 노동력

을 절감하는 드문모심기 기술 시범사업지를 돌아보고, 내년부터 실제 영농현장에 드문모심기 기술을 시도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시범농가를 방문하여 정밀농업 실현이 가능한 손쉬운 환경제어 시스템의 기능을 확인하고, 아열대 과수인 망고 시범 농가방문에서는 새로운 소득화 모델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기술 지도 및 교육을 이어나가겠다"며, "올해 남은 농사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 전국승달국악대제전 '성료'

한국 국악명가 강운학가 기리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



무안군은 제18회 무안 전국승달국악대제전이 지난 9월25일과 27일 무안군오승미술관 야외무대를 비롯한 4개소에서 이틀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무안 전국승달국악대제전은 무안군 출신 한국의 국악명가 강운학(강용안, 강남중, 강태홍)의 예술혼과 애

국심을 기리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무안군에서 개최되는 국악 경영행사로서 올해 18회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대회는 현악, 관악, 판소리, 무용, 가야금 병창, 판소리 고법 등 6개 부문(일반부, 노인부, 신인부, 학생부)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명인·명창으로 등극을 꿈꾸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310명의 국악 지방생들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20 무안 전국승달장애인 국악대제전을 겸하여 전국 최초로 장애인대회를 신설하여 진행하였다.

무안=이성기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